

# 북한에 인권의 빛을! 동아시아에 진정한 평화를!

—일본인이 한국인에게 드리는 편지—



야에코씨 (왼쪽)는 갓태어난 코오이치로씨 (오른쪽)와 딸 (가운데)을 남긴채 납치당했다. 북한에서는 두 아이를 생각하며 자주 울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5월 25일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서 북한은 마침내 두 번째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북한은 4월5일 「인공위성」 발사를 구실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앞으로도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는 미사일은 상당수가 이미 실전 배치되었고 전쟁의 험박과 위협적인 도발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의해 일본에서 납치된 사람들의 조속한 구출을 목표로 하는 민간 그룹입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금의 위험한 현실을 극복하고 싶기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동아시아의 실현과 납치 문제의 해결을 동시에 진척시키고 싶습니다.

올 3월, 부산에서 일본인 납치 피해자 타구치 야에코씨의 오후 이이즈카 시게오씨와 야에코씨의 아들 코오이치로씨, 87년의 대한항공기 폭파 테러 사건 실행범인 김현희 전공작원과의 면회가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면회가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신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이해에 대해 우리는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현희 전 공작원은 폭파 테러 사건 시 위조 일본 여권을 가지고 일본인으로 가장하였습니다만 그녀에게 일본어와 관습등을 가르친 사람이 야에코씨였습니다.

78년에 야에코씨는 아직 어린 아기였던 코오이치로씨를 남겨둔 채 공작선으로 북한에 실려갔습니다.

그 후 다수의 한국인을 희생시키는 테러에 관여할 것을 강요당했습니다.

강제적으로 몸을 구속하여 사랑하는 사람들과 갈라놓고 악행에 가담을 강요하는 납치는 가장 비참한 인권의 침해입니다.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가 가장 큰 나라는 말할 나위도 없이 한국입니다.

한국 정부는 6·25사변 이후 북한에 납치된 피해자를 약 5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6·25사변의 많은 포로들은 아직까지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탄광 등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 중에는 78년에 선유도 해안에서 실종된 고교생 김영남씨가 있습니다.

그의 운명이 밝혀진 것은 바로 3년전입니다. 77년에 13세의 나이로 납치된 일본인 소녀 요코타 메구미씨와 북한에서 결혼하여 딸까지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영남씨와 요코타 메구미씨의 소중한 청춘과 인생은 영망이 되었으며 야에코씨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북한의 대남 공작에 가담할 것을 강요당했던 것입니다.

2002년에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그 때까지 시치미를 떼고 있었던 북한 당국이 마침내 일본인 납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결을 향한 여정의 겨우 한 걸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13세인 메구미씨는 중학교 하교 도중에 납치당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3명의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였으나 그 중 5명 만이 4반세기 만에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야에코씨와 메구미씨를 포함한 전원이 사망했다고 일본 측에 전했습니다만 그 사망의 「증거」는 전부 가짜였습니다. 또 여러 조사들을 통해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수는 십 여명이 아니고 그 이상이라는 것도 명백해졌습니다.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를 당한 나라가

일본과 한국만이 아니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일본에 귀국한 납치 피해자 소가 히토미씨는 군사 분계선을 넘어 도망간 미군 병사와 북한에서 결혼했습니다. 그 미군 병사는 북한에는 그를 포함한 4명의 미국 병사가 있었으며 레마는, 태국, 루마니아의 납치 피해자를 배우자로 삼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여배우 최 은희씨는 북한에서 마카오에서 납치된 중국인 여성 공씨와 만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는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제에 상관없이 납치 피해자를 한 명도 빠짐없이 구출하여 하루빨리 고향에서 기다리는 가족과 재회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이산 가족의 비극을 낳았습니다만 이 문제와도 일본은 무관하지만은 않습니다.

59년 이후 「지상의 낙원」이라는 북한의 선전에 속아 9만 3천명의 재일 한국·조선인이 북한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그 중에는 6000명을 넘는 일본 국적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에 있는 친지들과 자유롭게 편지를 주고 받지 못하였으며 지금까지도 생이별 상태입니다. 자본주의 나라에서 왔다고 하여 특별 감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수용소의 위성사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에 처해있다

우리는 가혹한 정치체제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납치와 북한 민중의 노예화는 인권의 부정이라는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90년대 후반, 2000만 인구의 북한에서 300만명이 굶어죽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때 북한의 지도자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파산 국가인 북한에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민중의 그 어떤 의견도 허용치 않는다는 정치 체제 때문입니다.

위성사진에서 확인된 6곳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20만명이 인간으로서의 최저의 취급도 받지 못한 채 지금도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민중에 대한 자유의 억압이 전쟁의 위험을 낳는 것이라면, 나날이 커지는 북한의 평화에 대한 위협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기본적 인권의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을 북한에 널리 확산시키는 것이 납치 피해자를 구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 민중의 행복과 동아시아 및 세계에 안전을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또한 평화적이고 원활한 한반도의 통일을 북한이 민주화가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한일 양국민은 서로 손을 잡고 북한을 진정한 민주주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 투쟁에 나섭시다.

그리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제안합니다.

- 1)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관과 국제 회의에 북한의 인권문제를 호소합니다.
- 2)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북한에 관한 개별 프로젝트가 인권 개선을 꾀하도록 연결시킵시다.
- 3) 탈북자로부터 납치를 포함한 인권문제에 관한 정보를 더욱 많이 수집하여 한일 양국이 공유합니다.
- 4) 문제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납치 피해자와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 조사를 위한 국제적인 「인권 사찰」을 요구합니다.

이 의견광고는 일본의 일반시민의 모금에 의해 실현되었습니다

## 의견광고 7인회

c/o Asami Satoshi Office  
4th Floor, Miyamoto Building, 4-10, Kudan Minami 2-chome, Chiyoda-ku, Tokyo 102-0074  
JAPAN

有田 芳生	服谷 誠志	板野 龍一	Shigenori	高世仁	日比 隆	高世仁
아리타 요시후 (저널리스트)	카즈야 마사히코 (칼럼니스트)	카토오 데즈로 (히토쓰바시 대학 대학원 교수)	시게무라 도시미즈 (와세다 대학 대학원 교수)	타카세 히토시 (저널리스트)	히가키 타카시 (작가·저널리스트)	유가와 레이코 (음악 평론가)

스태프: 아사하라 후사오 / 아사미 사토시 / 이 선민 / 오오쿠보 이즈미 / 사이토오 히로시 / 타나베 이타루 / 야스다 타카시

<http://jinken.asia.kr/>